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01
----------	------

발의연월일 : 2024. 11. 4.

발 의 자 : 천준호 · 이해식 · 김 윤
박은정 · 김현정 · 민병덕
주철현 · 오기형 · 추미애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2022년 7월 ~ 2024년 6월)들어 연 평균 14,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2020년 1월 ~ 2022년 6월)의 6,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제공,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

용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 공문 하나당 100명, 1,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 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를 “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을 “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3호”를 “제3호·제4호”로 한다.

제4조의4 중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요구기관 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제출명령, 영장, 정보제공요구서 건수
2.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요구문서 건수(개별 법률에 따라 문서로 거래정보제공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명의인의 수
4.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계좌의 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 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 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 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u>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u> 종사하는 자에게 거 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 ----- ----- ----- ----- ----- -----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 ----- -. ----- ----- ----- ----- ----- -----.
1. ~ 8.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중전의 금융실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명거래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거래정보등을-----

⑤·⑥ (생략)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

-----제3호·제4호-----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

-----요구기관
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

<u><신 설></u>	<u>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u> <u>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1.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u> <u>제출명령, 영장, 정보제공요구</u> <u>서 건수</u>
<u><신 설></u>	<u>2.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u> <u>요구문서 건수(개별 법률에</u> <u>따라 문서로 거래정보제공등</u> <u>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u>
<u><신 설></u>	<u>3.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u> <u>은 명의인의 수</u>
<u><신 설></u>	<u>4.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u> <u>은 계좌의 수</u>